

전진'95 :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

화학저널 창간 4주년의 감회

화학저널이 5월15일로 창간4주년을 맞이했다. 1991년 2월1일 미근동의 10평 사무실에서 국내에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실제 가능성이 없었던 명실상부한 화학산업 전문지를 발간해 보겠다고 꿈에 부풀어 편집을 구상한지 4년3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화학저널을 국내외 화학산업계에 선보인지 꼭 4년이 된 것이다.

그 때나 지금이나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화학산업계에서 사랑받는 화학제품 마케팅전문지를 펴내는 것이 목표이지만, 미국의 Chemical Week나 Chemical Marketing Report, 유럽의 European Chemical News, 일본의 화학공업일보·화학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실력을 연마하고 전문적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들 전문지는 수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화학산업이 규모화되어 전문지가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 있었지만, 우리는 화학산업규모도 대단치 않았고 전문지에 대한 인식도 그리 좋지않은 척박한 토양이 아니었던가. 91년 당시는 석유화학산업이 삼성·현대의 신규투자에 힘입어 규모화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폭락의 조짐이 나타나고 경영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좋지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서 국내 화학산업을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규모화시키고, R&D를 독려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마케팅력과 기술서비스력을 제고시켜 전체적으로 한국 화학산업 수준을 선진국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었다.

취재과정상의 비협조와 장벽은 차치하고라도 편집방향을 둘러싼 비판과 비난, 광고를 움켜쥐고 편집을 요리하겠다는 망상 등등 창간 초기에 근간을 흔드는 난코스가 수없이 돌출되었음을 아는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전문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한국 화학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보겠다는 창간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 화학저널이 과연 역사가 우수한 해외전문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를 갖추었느냐고 물어온다면 단연코「아니올시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는 실로 숙연해질 수 밖에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만 자위한다면 기업역사 뿐만 아니라 전문지의 역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며, 10년·20년·30년의 연륜이 바탕이 될 때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받는 전문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4년의 짧은 역사이지만 화학저널은 국내 화학제품 마케팅전문지로, 화학산업의 여론주도지로 자리잡은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화학저널을 아껴주시는 애독자 여러분과 화학산업 관계자 모두의 공일 것이다.

초기 화학저널이 창간되었을 때 화학산업계가 보여준 호응과 견제의 양면을 되새겨보면 아찔했던 순간과 자신감 넘치는 벅찬 희망이 아로새겨지고, 과연 오늘의 화학저널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좋은 기사, 곳곳한 논평, 냉철한 분석에 온힘을 쏟아온 편집국 기자의 공이 아니었겠는가.

이제는 4년이라는 연륜이 쌓인 만큼 화학산업계의 온정에 의지할 수만은 없는 위치에 도달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을 부연해두고자 한다.

국내 화학산업계와는 협조와 협력속에서 언론으로서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는 관계정립에 힘쓰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화학기업과는 국내 화학산업 발전을 토대로 영업을 영위하고 경영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를 병행할 것이다. 다만 협력과 견제의 근저에는 화학기업과 화학저널은 별개의 존재가 아닌 공존의 관계이며, 화학산업이 발전하지 않고는 화학저널도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 분명히 해둔다.

설혹 화학기업 관계자 여러분에게 차갑고 매서운 비판이 가해지고 비우호적인 기사가 게재된다 할지라도 화학산업을 사랑하는 화학저널의 충정을 이해하고 상호 협조하는 뜻에 변함이 없기를 당부한다.

다. 그것이 사실에 토대하지 못하고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화학기업과 화학저널은 공존의 협력체이며, 한국 화학산업을 선진화하는 밑거름임을 강조해 둔다.

<화학저널 1995/5/15>